

## 청년층(20~29세)의 취업애로층 구성

- 2008년 8월 청년층(20~29세)의 취업애로층은 전체 청년층의 15.0%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
  - 청년층(20~29세)의 취업애로층을 실업자와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, 유휴 비경제활동인구의 합으로 정의
  - 실업률은 7% 수준을 보임.
  - 취업을 위한 학원·기관 통학, 개인적인 취업준비 등의 ‘취업준비 비경활(B)’이 청년 인구(20~29세)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8월 3.6%에서 2008년 8월 6.9%로 증가
  - ‘그냥 쉬었다’는 ‘유휴 비경활(C)’은 2003년 8월 3.0%에서 2008년 8월 3.7%로 증가

〈표 1〉 비경제활동 사유를 고려한 청년 인구의 구성

(단위: 천 명, %)

	2003. 8	2004. 8	2005. 8	2006. 8	2007. 8	2008. 8	
20~29세 인구	7,190.7	7,058.4	6,845.6	6,731.5	6,640.3	6,572.7	
취업자	4,316.4 (60.0)	4,226.6 (59.9)	4,148.4 (60.6)	4,028.8 (59.9)	3,966.7 (59.7)	3,862.0 (58.8)	
실업자(A)	337.4 ( 4.7)	341.0 ( 4.8)	331.0 ( 4.8)	323.7 ( 4.8)	277.6 ( 4.2)	290.2 ( 4.4)	
[실업률]	[ 7.3]	[ 7.5]	[ 7.4]	[ 7.4]	[ 6.5]	[ 7.0]	
비경제 활동인구	육아·가사	779.7 (10.8)	690.3 ( 9.8)	566.4 ( 8.3)	527.1 ( 7.8)	517.1 ( 7.8)	479.5 ( 7.3)
	재학·학업	1,078.1 (15.0)	1,040.7 (14.7)	1,028.1 (15.0)	1,062.1 (15.8)	1,109.8 (16.7)	1,154.1 (17.6)
	취업준비(B)	261.4 ( 3.6)	301.6 ( 4.3)	344.2 ( 5.0)	423.7 ( 6.3)	416.3 ( 6.3)	450.2 ( 6.9)
	유휴(C)	215.7 ( 3.0)	292.6 ( 4.1)	281.7 ( 4.1)	253.9 ( 3.8)	245.8 ( 3.7)	243.2 ( 3.7)
	기타	202.0 ( 2.8)	165.7 ( 2.3)	145.7 ( 2.1)	112.0 ( 1.7)	107.1 ( 1.6)	93.5 ( 1.4)
	소 계	2,536.9 (35.3)	2,490.8 (35.3)	2,366.2 (34.6)	2,379.0 (35.3)	2,396.0 (36.1)	2,420.5 (36.8)
취업애로층(A+B+C)	814.6 (11.3)	935.2 (13.2)	956.9 (14.0)	1,001.4 (14.9)	939.7 (14.2)	983.6 (15.0)	

주: 1) 취업준비는 ‘취업을 위한 학원·기관 통학’, ‘취업준비’임.  
 2) 유휴는 ‘그냥 쉬었다’임.  
 3) ( )안은 청년층(20~29세)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.  
 4) [ ]안은 청년층 실업률(실업률=실업자/경제활동인구)임.  
 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〈표 2〉 졸업·중퇴·휴학한 4년제 대학 이상 학력의 청년 취업애로층의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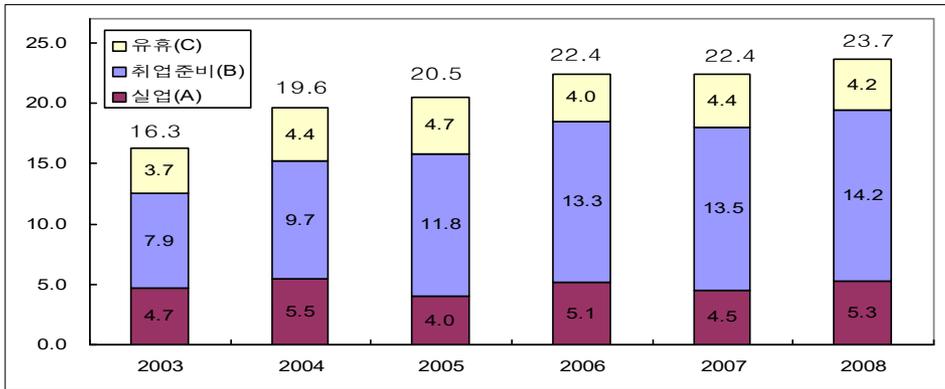
(단위: 천 명, %)

		2003	2004	2005	2006	2007	2008
졸업·중퇴·휴학한 4년제 대학 이상 학력 인구		1,718.4	1,814.8	1,867.4	1,951.5	1,919.2	1,970.8
비경제 활동인구	실업자(A)	80.4 ( 4.7)	99.2 ( 5.5)	75.3 ( 4.0)	100.0 ( 5.1)	86.0 ( 4.5)	104.0 ( 5.3)
	취업준비(B)	135.5 ( 7.9)	176.6 ( 9.7)	219.5 (11.8)	260.2 (13.3)	258.8 (13.5)	280.0 (14.2)
	유휴(C)	64.2 ( 3.7)	79.9 ( 4.4)	87.1 ( 4.7)	78.0 ( 4.0)	84.3 ( 4.4)	83.0 ( 4.2)
취업애로층(A+B+C)		280.1 (16.3)	355.7 (19.6)	381.9 (20.5)	438.1 (22.4)	429.1 (22.4)	467.0 (23.7)

주·자료: <표 1>과 동일.

〔그림 1〕 졸업·중퇴·휴학한 4년제 대학 이상 학력의 청년 취업애로층 비중과 구성 추이

(단위: %)



주·자료: <표 1>과 동일.

○ 4년제 이상 대학 및 대학원에 진입 이후 졸업·중퇴·휴학으로 학교를 벗어난 청년층의 취업애로층 구성을 살펴봄.

- 2008년 8월 4년제 이상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·중퇴·휴학한 청년층의 23.7%가 취업애로층임.
- 취업애로층은 2003년 8월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, 이는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가 대폭 증가한데 기인함.
- 학력이 높을수록 의증임금(reservation wage)이 높아 좋은 일자리를 탐색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.
- 실업자 감소를 넘어서 노동시장 진입의 애로를 겪는 청년층으로 확장한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함. **KL**

(정성미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)